

# 전국 회화작가 31명이 그려낸 ‘내면과 삶의 궤적’

### ‘그림자와 아름다운 새LAAM’ 내달 15일까지 광주 동구 갤러리람 광주경총 후원... “소상공인에 도움”

1호 붓으로 짙은 선명한 원이 캔버스 위에 나란히 정렬해 있다. 만개한 봄을 보여 주듯 화려한 색채의 수만개 점은 나름의 색깔과 빛으로 각각의 운율을 노래한다. 언덕 위에 어김없이 자리 잡은 작은 집들에서 엿보이는 정감도 따뜻하다.

“저 많은 점을 모두 어떻게 찍었을까.” 불규칙하게 보이지만 정교하게 놓인 점들, 봄날 맛보는 빛과 색을 평면 위에 거침없이 표현해 만든 수채화는 김은미 작가의 작품들이다.

유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묘화를 수채화로 표현한 김 작가는 작품 한 점을 그려 내기 위해 3개월여 동안 캔버스에 수십만 번의 점을 찍었다고 한다. “풍경화지만 난 풍경을 그린 게 아니고 점을 찍은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고뇌에 찬 모습으로 무언가를 갈구하는

수녀, 흑과 백의 선명한 대조가 그림 속 인물의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변하지 않을’,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처럼 화면은 묵직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따뜻함이 흐른다. 범접하기 힘든 종교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다. 무슨 사연을 품은 게 틀림없다.

실제 황영일 작가의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초상화 너머 사람의 이야기가 느껴진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이다. 무언가에 놀란 듯 번쩍 뜬 눈, 그리고 그 눈 주위에 선명한 분홍색 하트는 과연 작가의 어떤 흔적을 기록했을까.

광주광역시 동구 컬처호텔 램 1층 갤러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전 ‘그림자와 아름다운 새LAAM’전이 열린다. ‘LAAM’은 사랑, 보람, 요람 등 인간의 삶과 감정을 품은 단어 ‘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름이다.

호텔이라는 일상의 쉼터 안에서 예술이 전하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감성적으로 표현한다. 예술이 관람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광주광역시 동구 컬처호텔 램에서 열린 기획전 ‘그림자와 아름다운 새LAAM’에서 김은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는 방식이자, 작가의 삶과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에도 광주를 비롯해 대구와 전북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화 작가 31명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예술이 전하는 따뜻함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도 ‘사람’과 ‘그림자’, ‘머무름’이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동안 잊고 살았던 추억과 새로운 설렘, 익숙한 풍경은 물론이고 만화영화 주인공까지 등장한다. 선명하고 강렬한 컬러와 기하학적 형태의 선, 두드러진 인간의 감정들도 맛볼 수 있다.

특히 김은미 작가는 점을 이용해 일상의 풍경을 재해석한 ‘빛나는 5월’에서 엄격한 사실적 표현과 함께 색색의 점이 만드는데 상쾌한 봄의 풍경을 보여준다.

전시가 이뤄지는 갤러리 램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앞에 있으며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 관광호텔로 알려졌다. 전시도 ‘그림자’와 ‘새LAAM’이라는 상징에 중점을 뒀다.

서동균 갤러리 램 원장은 “전시 제목 속 ‘그림자’는 단순한 형상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 즉 예술가를 의미하며, 창작자의 내면과 삶의 궤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온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의 후원으로 이뤄져 의미가 크다. 전시의 판매 이익금 일부는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예술인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선화, 김성수, 김월숙, 김은미, 나은숙, 노정숙, 문승일, 문창섭, 박경희, 박귀임, 박미숙, 박일광, 박정일, 박화식, 박환숙, 배일섭, 백성혜, 서은선, 성유진, 손문익, 신의경, 신호재, 은애란, 이경민, 이영실, 이태형, 정은광, 조혁규, 천수연, 최정아, 황영일 작가 등이다.

글·사진=박찬기 기자 chan.park@jnilbo.com

## 책·그림·음악으로 엮인 고전명작 ‘인형의 집’의 재탄생

### GAC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2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해설 안인모·음악 몽마르뜨 밴드

광주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 두 번째 무대가 찾아온다.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각색한 공연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인 안인모의 해설과 함께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 희곡 ‘인형의 집’을 책, 그림, 음악을 엮어 80분간 펼쳐낸다.

‘인형의 집’은 남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주인공 노라가 삶과 가치를 돌아보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879년 발표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여성의 결단을 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페미니즘 문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함께 읽는 그림은 프랑스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의 ‘마드모아젤 샬넬의 초상’이다. 샬넬과 로랑생, 두 여성 예술가의 교감과 예술적 독립성은 ‘인형의 집’ 주제와 맞닿아 있어 공연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음악은 재즈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몽마르뜨 밴드’가 맡는다. 벨기에에서 연극을 전공한 보컬 미션 레나타를 중심으로 아코디언 데이브 유, 피아노 폴 커비, 베이스 송미호, 기타 박운우, 드럼 송하연 등이 최고의 연주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기 기자

## “오월광주 문화로 계승”... 민주주의 대축제 ‘시민난장’

### 17~18일 금남로 일대서 기념행사 연극·대합창·참여형 미술 전시 등

민주주의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되새길 축제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협력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 시민난장’ 프로그램이 17~18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15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월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시민 참여형 민중미술 전시 및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되는 ‘오월연극제’에서는 5·18을 알리는 광주 대표 극단 4곳이 참여해 당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놀이패 신명이 선보이는 ‘언젠가 봄날에’,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극단 깎지의 ‘망대’, 푸른연극마을의 ‘나와 어머니와 망월’ 등이 무대를 꾸민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부터는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민주주의 대합창’이 열린다. 광주의 ‘오월 어머니 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의 ‘박종철 합창단’, 서울의 ‘이소선 합창단’, 안산의 ‘416 합창단’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한 7개의 합창단이 함께 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행사 기간 금남로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민중미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5·18기록관 건물 외벽에는 대형 민중미술 걸개그림이 설치되며, 금남로1~5가 구간 가로수에는 120점의 5월 만장 그림이 전시된다.

전일빌딩부터 금남로1가 입구 구간에는 시민들이 작가와 함께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 진행되며, 금남로 1~2가 구간에는 밀그림이 그려진 4개의 합판을 설치해 시민과 작가가 공동 채색을 하며 오월광주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MZ세대와 잘파세대(Z세대+알

파 세대 합성어)가 민주화 정신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기반 몰입형 체험 미션 투어 ‘5·18 미션챌린지 - 민주결사대’ 체험도 17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5·18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역사책으로만 접한 청소년들을 겨냥한 체험으로 오월정신이 후대 세대까지 계승돼야 할 필요성을 되새길 전망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5·18민중항쟁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에 5·18기념행사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통합 정보를 제공 중이다. 또 17일 ‘시민난장’ 체험 부스에서는 ‘디어마이광주’ 앱으로 5·18 행사 정보를 확인하는 시민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잇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훼손되거나 잊혀선 안 될 5·18 정신을 모든 연령층이 함께 어울려 문화와 예술로 즐기면서 계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기 기자

## 추상미술 거장 몬드리안 발레로 만나다

### 오는 7월18~19일 ACC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창작 발레 공연 ‘몬드리안 - 더 라인 오브 욕세션(사진)’을 오는 7월18일과 19일 이틀간 ACC 극장1에서 선보인다.

15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20세기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기하학적 선과 색채에서 영감을 받아 ‘발레의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무대에서는 ‘선과 색’에 집착했

던 몬드리안의 내면을 무용과 미디어아트, 음악이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몬드리안’이 추구한 미술의 본질과 안무가 정형일이 추구하는 발레의 본질이 빚어낸 창의적인 무대 미학을 확인할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7월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3시 등 총 2회 열리며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하면 된다.

박찬기 기자



## “국악 감상하며 명상·치유 어떠세요?”

### 내달 14일 국립남도국악원서 올해 첫 시행 ‘국악의 날’ 기념 20~30일 접수·80명 선착순 모집

아름답게 펼쳐진 진도의 풍경을 배경 삼아 국악곡을 감상하며 명상으로 치유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악의 날(6월5일)을 기념해 ‘국악 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다음달 14일 오후 4시부터 전라남도 국립남도국악원 야외마

당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15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26일 국악진흥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후 올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이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날·국악주간’을 맞아 국악의 보존과 계승, 육성 및 진흥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국악곡 ‘기악합주, 대금독주, 단가’ 감상과 명상 △각종 명상 통한 몸·

마음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명상으로 나를 비워내고, 국악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을 통해 선착순 80명의 체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 기자